

# 홀로서기, 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교육·상담서비스 사업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16일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전국 한부모 가족 2500여 가구를 상대로 한부모 가족실태를 조사·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중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10.7%에 불과했으며, 총57만가구로 추산되는 한부모 가족의 3분의 2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모자가족'이었다. 또한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7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253만원의 절반수준이었다.

그만큼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 수입, 육아, 정신건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지난 1월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 이하 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한부모가족 전문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형별 맞춤지원, 한부모 디딤돌역할

센터는 한부모 학습지원, 정보제공, 인식개선 캠페인,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학습을 중단한 두리모(미혼모의 새 이름)와 미혼부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습공백으로 생긴 부족한 기초 학력을 갖추게 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한편, 상담이나 인성교육을 통해 한부모들의 정서적 안정도 도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들. (사진제공=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원하고 있다. 검정고시 학습반과 정규 학습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임신이나 출산으로 출석이 어려운 미혼모들을 위해 지역별 거점기관에 검정고시 강사를 파견해 공부를 돕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학습반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측은 "성적장학금과 출산장학금 등의 장학 지원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업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센터는 이들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통합상담 서비스를 개설해 2011년 네이비지시인 지식파트너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부모가족 상담을 전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부모가족복지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갖추는 일과 복지 강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의 조기 자립에 필요한 다각적 정보 지원 매뉴얼인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 길라잡이>를 매년 발간·배포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정보와 주거·교육·양육·자립·위기 지원 등 한부모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생활영역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펼치는 인식개선 캠페인은 센터의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통한 '비움의 동행', 재가 한부모의 심리적 위기 극복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심리상담을 연계하는 '힐링의 동행',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

려움이 큰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청구지원 사업인 '질반의 동행'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센터는 한부모 당사자들을 '한부모 가정 지원 생활 코디네이터'로 양성해 초기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을 운영, 아기를 스스로 키우고 싶어하는 미혼모·부들에게 초기에 겪기 쉬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육을 비롯해 자립에 필요한 것은 물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적 정서적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 해결과 가족 관계에 힘이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부모가족복지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갖추는 일과 복지 강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사자 및 가족은 누구나 상담 가능

센터의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은 한부모·미혼모 당사자 및 가족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과 온라인상담(www.seoulhanbumo.or.kr), 내방상담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방이 어려운 경우 센터가 직접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희망한다. 살면서 삶의 무게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며 "센터가 한부모가족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2)861-302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복지 단신

### 독서로 세계일주 떠나자

신사중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에서 운영하는 신사어린이도서관은 7월 23~25일 책과 함께하는 연극놀이 '나도 잘 하는게 있어'를 주제로 독서세계일주를 진행한 다.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레이트는 놀라워>라는 책으로 자신의 장점과 꿈에 대한 생각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다. (02)376-4141

### 박홍우 법원장, 아름다운동행에 기금 동참

#### 아프리카 학교건립에 정성 보태

박홍우 법원장(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아름다운동행의 아프리카 학교건립사업 후원에 동참했다.

불자인 박홍우 법원장은 7월 16일 아름다운동행 사무실을 직접방문해 1백만원의 후원,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며 "아프리카에 학교를 건립하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자비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의 아프리카 학교건립 동참에는 벽돌 한 장 1만원, 책걸상 셋트 5만원, 땅 한평 10만원, 식수대 30만원, 컴퓨터 한 대 100만원, 교실 한 동 1,000만원, 법당 건립 5,000만원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학교건립을 위한 CMS 정기후원도 가능하다(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문의 02-737-9595).

### 은평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선풍기 지급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7월 5일 지난 어버이날 진행한 '제2회 행복드림 바자회' 수익금으로 독거어르신 50명에게 선풍기를 전달했다.

복지관은 은평구 관내 1300여 명 독거어르신을 독거노인들보다 45명이 정기적으로 안전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에는 폭염

안전확인, 겨울에는 한파 안전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올 여름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중 선풍기 미보유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풍기를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이 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02)385-1351

### 중립복지관,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중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7월 2일 지역 내 외로운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행복한 가정만드는 종근당과 연계해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정서·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할

동이다. 이날 종근당 임직원들은 중립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 어르신들에게 전해줄 매실장아찌와 삼계탕 재료를 만들었으며, 여름철 벌레 퇴치를 위한 모기향을 준비해 어르신 10가정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02)362-3348

### 황송노인복지관, '행미가' 참여 어르신 나들이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은 7월 10일 행미가(幸美家)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10분과 즐거운 여름 나들이를 진행했다.

복지관은 "참여대상자의 대다수는 80세 이상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외부출입이 어렵고 문화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들이 경험이 많지 않다"며 "나들이에서 어르신들은 생태학습원 관람, 원예치료프로그램체험하며 무료한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과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행미가는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램으로, 행복한 미소가 있는 집을 꿈꾸는 의미다. 총 8회기로 우월적도검사, 자기개방을 위한 시간, 레크리에이션, 나들이, 일상목표세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031)602-3657

# '사찰음식의 지혜'로 건강 음식문화 만들자

## 선재 스님, 7월 미래복지포럼서 강연

"불교의 교리와 연결돼 있는 사찰음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생활에서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사찰음식을 활용한 건강한 음식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7월 16일 전법회관에서 개최한 7월 미래복지포럼서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사찰음식을 활용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건강한 음식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한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의 형식이나 식재료, 음식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담겨져 있는 지혜"라며 "누구나 사찰음식을 통해 건강과 지혜, 자비하사 사무량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불교의 교리와 연결돼 있는 사찰음식의 궁극적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생활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스님은 △육류와 어패류를 식재료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로 사용하지 않음 △오신채(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를 사용하지 않음 △약리작용이 있는 식재료 사용 △제철에 사는 식재료 사용 △음식 섭취도 수행의 하나 등을 사찰음식의 특징 5가지라고 소개했다.

또한 스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소식(蔬食)하고 채소를 주로 먹는 소식(蔬食), 적게 먹는 소식(小食)을 하라"고 삼소식을 강조하면서 "정결하게 조리하고 삼덕(정정, 유연, 어법)과 욕미를 갖추고 생대리듬에 맞는 섭생과 제철음식 섭취 등 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7월 31일
- 5. 문의처**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大學) 02)511-1080,2026

## 65세이상 승려연금 지급 중단 (울종)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울종은 계율정성한 울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총무원장 해인 합장

**입종 및 사찰등록안내**

-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 참고사항 ◆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